왜 누워서 침을 뱉는가

사람에게 악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악행의 과보는 자신에게 돌아간다.
마치 바람을 거슬러 먼지가 날아가듯이

- 부처는 중생도 모두 부처로 보지만, 중생은 부처까지도 중생으로 깎아 내린다. 상대방을 볼 때 자신의 견해대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자신의 잣대대로 상대방을 저울질한다. 즉 자신이 돼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상대방도 돼지로 보일 수 밖에 없고, 자신이 부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상대방도 부처로 보이는 법이다. 결국 상대를 꾸짖고 비난함도 자신에게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는 것이다.